

보도	2026.7.13.(월) 09:40	배포	2026.7.10.(금)		
담당부서	자산운용감독국 자산운용제도팀	책임자	국 장	유석호	(02-3145-6700)
		담당자	팀 장	류지웅	(02-3145-6717)

금융감독원장, 자산운용사 CEO 간담회 개최

- 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7.13.(월) 금융투자협회장 및 20개 운용사 대표이사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'26년도 자산운용사 의결권 행사·주주권행사 체계 점검결과 및 기타 자본시장 현안에 관하여 논의

- ① **(논의내용)** 그간 의결권 행사 점검을 통해 자산운용업체가 주주권 행사 측면에서 점차 개선*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나,

* 공. 사모펀드 행사율. 반대율 ('24년) 79.6% 5.2% → ('25년) 91.6% 6.8% → ('26년) 91.8% 8.2%

- 형식적 공시*, 주주권 행사 관련 취약한 내부통제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개선이 필요하며,

* 올해 점검대상 285개사 중 121개사(42.4%)가 절반 이상의 의결권 행사에서 '주주 총회 영향 미미', '주주권 침해 없음' 등 형식적 사유로 기재

- 의결권 행사의 경우, 투자자가 그 적정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행사 정책 및 공시 체계를 내실 있게 정비할 것을 주문하는 한편,

-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전담조직, 수탁자책임위원회, KPI에 대해 최고경영자의 관심과 개선 노력이 필요함을 당부

- 한편, ETF에 대한 운용사의 거짓·과장광고는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매우 엄중한 사안으로 특단의 자정 노력이 필요하며,

- 자산운용사가 유망 산업 분야로의 적시 자금 공급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 줄 것을 제언

- ② **(향후계획)** 공·사모운용사 대상 설명회(7~8월중)를 개최하여 점검 기준 및 결과, 미흡·모범 사례 등을 설명할 계획

- 앞으로도 자산운용업계가 **신인의무(Fiduciary Duty)**를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업계와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음

I. 간담회 개요

-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'26.7.13.(월) 금융투자협회장 및 20개 자산운용사 CEO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여
- '26년 자산운용사 의결권 행사 현황·주주권 행사 체계 점검결과 및 기타 자본시장 현안에 관하여 논의

☑ **일시 및 장소** : '26. 7. 13.(월) 09:40 ~ 11:15, 금융투자협회 대회의실(23F)

☑ **참석자**

- (금융감독원) 이찬진 금융감독원장, 서재완 금융투자 부원장보, 자산운용감독국장, 금융투자검사2국장
- (운용업계) 금융투자협회 회장, 자산운용본부장 및 자산운용사(20社)* 대표

* 삼성, 미래에셋, KB, 신한, 한국투자, NH-Amundi, 우리, 키움, 교보AXA, DB, 마이다스에셋, 하나, 베어링, 트러스톤, 현대인베스트먼트, iM, 삼성엑티브, 타임폴리오, VIP, DS

II. 주요 논의 내용

1

금융감독원장 발언 요지

- 금융감독원은 그간의 의결권 행사 점검을 통해 자산운용업계의 수탁자책임 이행 수준을 제고하고자 계속 노력해 왔던 바
 - 운용업계가 그간 여러 측면에서 개선*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
- * 1) 공·사모펀드 행사율·반대율 ('24년) 79.6% 5.2% → ('25년) 91.6% 6.8% → ('26년) 91.8% 8.2%
- 2) 전담조직·수탁자책임위원회·KPI 등을 구비한 공모 자산운용사의 수가 전년 대비 증가
- 금년 모범사례로 선정된 삼성·NH-Amundi·VIP자산운용과 작년에 이어 양호* 평가를 받거나, 뚜렷한 개선**을 이룬 운용사에 감사를 표함

* 미래에셋, 교보AXA, 트러스톤, 신영

** 한국투자, KB

□ 또한, 자산운용사 CEO에게 의결권 행사 및 내부통제 등과 관련하여 다음 내용을 당부함

- **(의결권행사 프로세스 내실화)** 의결권 행사·공시와 관련하여 여전히 소위 ‘복사·붙여넣기’ 식 공시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은 개선 필요
 - 이에 투자자가 의결권 행사의 적정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행사 정책 및 공시 체계를 내실 있게 정비하여야 함
- **(내부통제 확립)** 주주권 행사 체계 점검결과 관련 내부통제 체계를 적절하게 갖춘 회사가 주주 활동에도 적극적이었으므로
 - 전담조직, 수탁자책임위원회, 성과지표 등 내부 관리체계가 실효성 있게 작동되도록 최고경영자의 관심과 개선 노력이 필요
 - 금융감독원도 주주권 행사 관련 내부통제 정착을 위하여 계속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음
- **(ETF 과장광고 등 시장질서 저해 근절)** 투자자가 ETF를 직접 선택하는 과정에서 운용사 광고에 주로 의존하는바 운용사의 거짓·과장광고는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매우 엄중한 사안임
 - 이에 광고 제작 및 자체 심의 과정에서 정확한 투자 정보가 투자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,
 - ETF 운용과정에서 LP 증권사와 함께 피리올 관리 등에도 만전을 기할 필요
- **(모험자본 공급에 적극 동참)** 자산운용사가 자본시장의 주요 플레이어로서 유망기업을 분석 및 발굴하여 투자자금을 공급하는 한편,
 - 성장 과실을 투자자에게 분배함으로써 생산적 금융의 ‘선순환 구조’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할 필요

2

참석자 발언 요지

- 자산운용업계는 신인의무(Fiduciary Duty)의 내실 있는 수행 필요성에 대해 적극 공감하며 이를 위해 협력할 것을 언급
 - 의결권 행사를 포함한 주주권 행사 강화를 위해서는 운용사 측면에서는 조직, 자원 등 인프라 마련이 필수적이며,
 - 우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, 전문인력 양성, 관련 제도 개선 등에 대해서 제언
 - 한편, 건전한 ETF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운용사 간 무분별한 '상품 बे끼기'에 대해 업계의 자체적인 시정 노력이 필요

3

향후 계획

- 금번 간담회 이후 공·사모운용사의 의결권 행사·공시 담당자 대상 설명회(7~8월중)를 개최할 계획
 - 금번 점검결과, 금융감독원의 점검기준, 미흡·모범 사례 등을 운용사 실무 담당자에게 직접 설명하여 주주권 행사가 신인의무에 따라 충실하게 이행 되도록 적극 유도·지원할 계획
 - 앞으로도 자산운용 관련 여러 현안에 대해 업계와의 소통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음

※ (별첨)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모두발언 1부